

기고

카드배송 사칭 보이스피싱 기승

“신청 안 한 카드 배송 연락은 의심부터”

최근 카드 배송을 빙자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찰은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는 카드 배송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가짜 고객센터 번호로 유도하고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해 휴대폰을 장악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지른다. 이 과정에서 검찰,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기망과 협박이 이어져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여신금융협회 및 카드업계와 협력하여 전국적인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주요 수법 안내
1. 신청하지 않은 카드 배송 안내 문자 발송
2. 카드 배송원이 카드사 고객센터 번호를 알려준다며 가짜 번호 안내

3. 전화를 걸면 카드사 직원 사칭법과 연결
4. 휴대폰 원격제어 앱 설치 유도
5. 설치 이후 금융정보 탈취 및 금전 요구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방법 및 행동 요령
1. 신청하지 않은 카드 배송 연락은 의심부터 하십시오. 카드사는 고객에게 먼저 카드 배송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2.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카드 뒷면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십시오. 보이스피싱범은 가짜 고객센터 번호를 제공해 피해자를 유인합니다.

3. 문자메시지에 기업로고, 안심마크, 카카오 인증표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보이스피싱 메시지에는 공식 로고나 인증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원격제어 앱 설치 요구는 무조건 거절하십시오. 카드사 및 공공기관은 절대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경찰 또한 이러한 예방 활동과 더불어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라디오 공익광고, 카드사 ARS 멘트, 팝업 및 문자 발송 등 다양한 채널로 보이스피싱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특히 60대 이상 여성 대상 맞춤형 안내 강화, 배송 시스템 점검 및 내부 통제 강화를 카드업계에 요청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시민 여러분의 경각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을 경우, 지체없이 112나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구례경찰서 읍내파출소 순경 박민영

점점 더 사라져 가는 것 같다고 한다. 인간들 사이의 정감이, 현대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혼란한 정들이 더 아름답게 피어나야 하는데도. 서글픈 현실이지 않은가. 막하 대한민국은 6월 3일 대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해할 수 없는 정치적 폭거로 인해서, 이처럼 지도자를 잘못 선출하면 국력이 엄청나게 소모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다양한 정파들의 이해득실에 따른 이진투구는 대한민국 전체를 블랙홀 속으로 몰아 가는 것 같다. 여야 정파의 악다구니 혈투는 그렇다고 치자. 본래 구조가 그러니까.

칼럼

임성욱

시인/사회복지학박사



대법원 비난받아도 싸다

런 부적인 상황이 심해지면 누가 재판 결과에 승복하겠는가. 그랬을 때의 사회적 혼란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잡범이나 흉악범들까지도 재판 결과에 승복하겠는가. 무법천지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 상상조차도 싫은 장면이지 않은가.

특히 사법부는 잘못을 재판하는 곳이다. 때문에 항상 그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도 심사숙고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법 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듯한 행위를 저질러버렸다는 사실이다. 어떤 현직 법관은 “대법원이 선거관에 뛰어 들었다. 대법관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재판을 통해 정치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다.

선거 후 사법부가 입을 타격이 수습 가능할 것인지 걱정될 뿐이라면, 99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보편적인 법언 아니던가. 어쩌다가 이 나라가 요 모양 요 꼴이 되어가고 있을까. 참으로 통탄스럽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떤 사람인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아닌가. 후시라도 윤석열 내란 세력과 함께하려는 심사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제발 세상의 이런 추론들이 맞지 않길 바란다.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무너져서는 안 되길 바란다.

과거에는 김대중 후보 등 강력한 대

선주자금들의 정치자금 수사나 재판도 선거기간 중에는 오해를 피하려고 중단했다고 한다. 그래야 타당하지 않을까. “사랑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다(love is not something you feel. It is something you do.)”라는 명언을 남긴 미국의 목회자이자 작가였던 데이비드 윌커슨(David Ray Wilkerson 1931.5.19.~2011.4.27.)이 주장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는 사랑은 감정보다 책임과 실천이 따르는 선택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사법부도 선거기간을 불과 며칠 남기지 않는 상황에서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작금의 상황을 보면 오해 사기에 딱 맞을 것 같다는 여론이 많기 때문이다. 때문에 의도를 갖고 재판하려는 상황처럼 보여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생방송까지 해가면서, 그야말로 오만무아 아래서 갖곤 고쳐매는 꼴이라 생각되지 않는가. 심사숙고하길 바란다. 오죽했으면 현직 판사들까지 실명을 밝혀가며 비난하겠는가. 명색이 이 나라 최후 보루라는 대법원을 향해서.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가정의 달 5월, 화재예방교육과 실천을

최근 TV와 신문 등 방송매체를 통해 주택, 공장, 산 등에서 원치 않는 화재가 발생해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대피할 겨를도 없이 사람이 죽는 안타까운 뉴스를 접하곤 한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화재예방교육과 실천으로 화재로 인한 피해 없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자.

특히 평상시 전기 화재예방 교육은 필수다.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안하기, 누전차단기 정기 점검, 멀티탭은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플러그 뽑기 및 전기코드는 꼭 플러그를 잡고 뽑기, 주변 먼지는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이때 젖은 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교육하자.

납거나 손상된 전선은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정격용량을 초과하는 전기를 사용하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전기제품 규격에 맞는 퓨즈와 차단기 사용하자. 어버이날에는 부모님이 사시는 곳에 화재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제거하는 수고로움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보일리실과 부

엿 가스레인지 주변 신문, 박스 등 가연물을 치우고 노후화된 전기배선은 교체하자. 또 쓰레기를 모아서 직접 처리하고 소각으로 인한 주택 화재나 산불 사례를 통해 위험성을 알려드리자.

부부의 날에는 서로서로 가정·직장에서 화재 위험요인을 말해주는 시간을 갖고 유사시를 대비해 내 가정 내 직장에서 소화기 등 소방시설과 피난시설의 위치를 확인하고 사용법을 익히자.

고흥소방서 과역119안전센터 한선근

오늘의 운세 2025년 5월 9일 금요일 (음력 4월 12일)

Grid of 12 zodiac signs with their respective daily forecasts for May 9, 2025.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Kwangjeon Maeil Shinmun, including email, phone numbers, and address.

Large advertisement for 'Korea Expressway 50th Anniversary' featuring a hand holding a map of Korea and logos for EX and 50th anniversary.